



**특집** \_ 멕시코 이민 110주년 전통의 맥 이으며 뿌리 찾기 관심

**화제** \_ 강제 이주 역사 간직한 카자흐스탄 한인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민족 역량 키워



# 자연 환경을 정밀하게 묘사한 고지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인출해 간행한 전국 지도이다. 대동여지도를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은 약 60장으로 추정되며, 일부인 12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김정호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각각 1권의 책으로 엮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제작해 지도를 편리하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 전체를 모두 22권의 책에 나누어 수록하고, 각 권의 책은 병풍처럼 펴고 접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 크기의 대형 전국 지도가 만들어진다.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된 점이 중요하다. 목판에 각종 지리 정보를 판각해 이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 지식의 폭넓은 보급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잦은 필사로 인해 잘못된 지리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뜻도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 목판

일부 해안, 도서 지역을 판각할 경우 전체 목판면의 일부만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여백으로 남는 공간에는 다른 지역의 지도를 판각함으로써 목판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렇게 여러 지역의 지도가 한 면에 함께 판각된 경우에는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에만 먹물을 발라 일부만을 인쇄해 활용했다.

대동여지도 목판에는 지도를 펴낸 뒤 확인된 오류에 대한 수정 작업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김정호가 정확한 지리 지식의 보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창**



서울대 규장각에 전시된 대동여지도



### 표지 이야기

1905년 4월 1천31명의 이민자는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멕시코 유카탄의 주도 메리다에 도착했다. 열악한 환경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한 이들은 현재 4만 명이 넘는 한인 사회를 일궜다.

- 02** 한국의 얼      자연 환경을 정밀하게 묘사한 고지도 대동여지도
- 04** 특집            멕시코 이민 110주년  
전통의 맥 이으며 뿌리 찾기 관심
- 06** 동포 소식      재미 한인 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소설 도서관에 보낸다 외
- 09** 동포 캘린더    재영 한글학교협의회, 런던서 교사 연수 실시 외
- 10** 기획            강제 이주 역사 간직한 카자흐스탄 한인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민족 역량 키워
- 12** 화제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 준비 콘퍼런스  
한인 정치력 확대 모색
- 14** 글로벌 코리아    미 최대 환경단체 신임 회장 된 한인 2세 리아 서  
한류 쇼핑몰 운영하는 이순배 거산재팬 대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 추진하는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장
- 16** 지구촌 통신문    미주 한인의 날 맞아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 선정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성공 신화
- 17** 동포정책 Q&A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모국 활동 편의성 높여 도입
- 18** 한민족 공감      아시안컵 축구 동포 응원 열기  
선수들 북돋워 준 뜨거운 동포애
- 19** 현장의 목소리    "한인 여성들이여 네 꿈을 펼쳐라!"  
다양한 문화 활동 펼치는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
- 20** OKF 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재외동포재단 방문 외
- 22** 동포문학        세월  
김소연 \_ 프랑스 \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포항 영일만에서 구룡포까지  
만과 꽃이 서로 부둥켜안는 땅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멕시코 이민 110주년

# 전통의 맥 이으며 뿌리 찾기 관심

2015년은 멕시코 한인 이민 11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05년 4월 이민자들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40일간의 항해 끝에 5월 12일 태평양 연안의 오악사가 주 살리나스 크루스 항에 도착했다. 성인 836명, 어린이 195명 등 1천31명의 한인 중에는 200명이 넘는 대한제국 퇴역 군인이 포함됐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1905년 5월 20일경 최종 목적지인 유카탄의 주도 메리다에 도착한 뒤 25개 정도의 에네켄 농장에 배치됐다. 한인들은 대체로 30~40명 단위로 분산·수용됐는데 야스체 농장과 춘추쿠밀 농장에는 70명씩, 첸체 농장에는 133명이 갔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흔히 '애니깁'이라고 불리는 에네켄은 선박 등에 쓰이는 밧줄의 원료를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이다.

지상낙원으로 알고 있던 환상은 곧 깨졌다. 한인들은 새벽 4시부

터 어두울 때까지 에네켄 앞을 자르고 섬유질을 벗겨냈다. 땀별에 얼굴이 검게 타고,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다. 참고 견디며 일했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과 식량도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나라에 빠졌다.

노예와 같은 생활은 4년 뒤 끝났다. 1909년 5월,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경술국치를 앞둔 고국은 녹초가 된 그들이 돌아오기에는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한인들이 타지로 떠나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메리다 주변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유카탄 반도의 한인들은 1909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회의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했다. 메리다 지방회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송금하고 해동학교·진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인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멕시코 순방에 나선 안창호는 1918년 2월 1일 메리다 지방에서 개최한 국민회 제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메리다 지방회는 1930년경부터 회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쳐 성공을 모은 끝에 회관 대지를 구입하고, 1935년 1월 회관 낙성식을 열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페인어를 쓰는 2세 위주의 새로운 청년회가 설립되자 메리다 지방회는 서서히 쇠퇴하다가 1960년에 폐쇄됐다.

### 멕시코 전역과 쿠바까지 진출해 한인사회 형성

1920년대 인조섬유가 등장하고 에네켄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져 나갔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착하고, 오늘날 4만 명이 넘는 한인사회의 씨를 뿌린 것이다. 특히 한인 274명은 1921년 쿠바 사탕수수 농장으로도 넘어갔다. 이들은 현재 수도 아바나 등지에 사는 한인 후손 1천100여 명의 선조이다.

이민 당시 대규모 에네켄 농장이 있던 메리다 시에는 후손 5천여 명이 살고 있다. 1세는 물론이고 2세마저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며, 3~6세들은 대부분 현지화돼 기록을 들추기 전에는 선조가 전해준 이민 역사에 대해 기억조차 희미하다.

그러나 모국의 위상과 함께 멕시코에서 한인의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모국에 대한 이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의사·변호사·교수·기자·회계사·사업가 등 전문 분야에 진출해 멕시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인 후손은 뿌리 찾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민 선조의 모습도 자랑스러워한다. 그 중심에 한인후손회가 있다.

멕시코 한인후손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 후손은 4만 명을 헤아린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멕시코 한인회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전통 제사를 재현하고, 옷놀이와 사물놀이도 따라 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글, 김치 담그기도 배운다. 또 K-팝과 한국 TV 드라마를 보며 모국을 동경하고 있다.

현지화된 한인 후손이 모두 재외동포 통계에 잡히지는 않는다. 2013년 외교부에 따르면 멕시코 거주 재외동포 인구는 1만 1천364명. 이 가운데 903명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1만 461명은 유학생·주재원 등 재외국민이다. **▶**



2



3



4



5



6

1.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이민 1세대들의 모습. 1905년 5월 12일 1천31명의 한인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살리나스 크루스 항에 도착한 이민선 일포드호(오른쪽 아래)
2.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한인 후손들.
3.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해군 순항함대가 멕시코 살리나스 크루스 항을 방문, 기념행사를 열었다.
4.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후손과 한글학교 학생들이 광복절을 맞아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5. 멕시코시티 한글학교가 2010년 9월 1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6. 멕시코에 이민한 한인들을 기리기 위해 2005년 유카탄 주의 주도인 메리다에 건립한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탑'.

## 재미 한인 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소설 도서관에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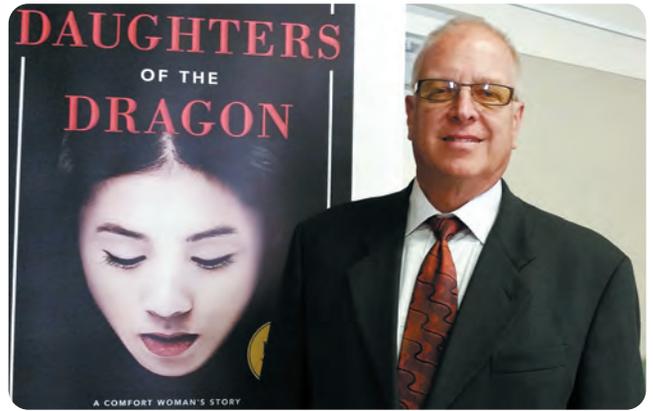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소설 '용의 딸들(Daughters of the Dragon)'을 미국 전역의 도서관과 대학 및 공립학교에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에는 거주한미포럼(KAFC·대표 윤석원), 미주한국문인협회(회장 장효정),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홍순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지회(회장 권유나), 퓨처 영 리더스 오브 아메리카(FYLA·회장 김정애) 등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재미동포들이 책값(권당 15달러)을 기부하면 '용의 딸들'을 미국 내 학교와 도서관에 4~5권씩 발송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기부금 수표(payment to KAFC)를 작성해 거주한미포럼 지정 주소(KAFC 701 S. Kingsley Dr. #301 LA, CA 90005·문의 ☎213-880-7992)로 보내면 된다.

책의 저자인 윌리엄 앤드루스(61)도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고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위안부의 삶과 죽음'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자희 자매의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을 도서관에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작가와 소설의 표지

삶과 죽음을 다뤘다. 앤드루스는 집필을 위해 8년 동안 태평양전쟁 때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를 폭넓게 공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 '2014 중국을 감동시킨 10인'에 조선족 김옥 씨



중국 조선족 김옥 씨가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로 뽑혔다.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에 조선족 김옥(44) 씨가 뽑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1월 31일 오후 2시 57분 끝난 인터넷 투표에서 27명의 후보 가운데 총 237만3천631표(3.98%)를 얻어 9위를 차지했다. 투표에는 네티즌 5천958만3천936명이 참

여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0명의 '감동중국' 인물을 선정했다. 시대를 앞서가거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인물을 뽑아왔다.

김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허반신이 마비됐다. 자살하려고도 생각했던 그는 부모가 사준 컴퓨터와 만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냈다.

그는 2000년 엔지(延吉) 시에 육용컴퓨터양성학교를 세웠다. 그는 절망을 체험한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는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쳤다. 2011년에는 '해심 광천수 공장'을 세워 장애인과 실업자 등 2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장애인과 1만여 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혜택을 준 김옥 씨가 내놓은 금품은 64만 위안(약 1억 1천317만 원)에 달한다. 김옥 씨가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연도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 무오독립선언 96주년 기념식 중국 선양서 열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만주와 러시아 등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1919년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1월 3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회장 김성웅) 주최로 선양 한국국제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봉섭 선양총영사와 박영완 선양한인회장, 길경갑 월드옥타 동북3성 회장 등 현지 교민과 동포 대표, 공관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영상자료 상영, 무오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광일 한신대 명예교수가 무오독립선언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강연했다.

무오독립선언의 중심지인 만주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거행된 것은 올해로 세 번째이며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국가보훈처와 선양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신봉섭 선양총영사는 축사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96년 전 그날의 정신으로 돌아가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1월 3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한국국제학교에서 민주평통 선양협의회 주최로 열린 무오독립선언 96주년 기념행사에서 현지 한인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소양, 신채호, 안창호, 김좌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민족대표 39인이 참여한 무오독립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항일투쟁의 실제 중심이었던 만주 지역에서 선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사카 시민 주도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안 마련



오사카 시민 주도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도쿄서 재일민단 주최로 열린 헤이트 스피치 근절 심포지엄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大阪) 시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오사카 시정부의 채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민과 변호사 등이 참여한 ‘헤이트 스피치 시민 규제 조례 제안’ 모임은 1월 17일 규제 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100여 명이 참가

한 이 모임은 지난해부터 ‘함께 만들자~ 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를 표어로 내걸고 오사카시 이쿠노(生野) 구에서 규제 조례 관련 주민 학습회를 열어왔다.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는 단순한 모멸 수준이 아니라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폭력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강연에 나선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지방 행정부가 국가에 대해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요청하고,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선언을 채택하도록 시민 차원의 제안 운동을 계속 펼치자”고 호소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시모토 시장은 시민 규제 조례안에 대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하겠다”고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고 국가에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4개 지방의 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서 K-팝 이어 한국 드라마 첫선



한국 드라마 방영 청원 운동을 주도한 아르헨티나 한류 팬클럽 회원들

남미 대륙 한류 확산의 거점 국가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드라마가 첫선을 보인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원장 이종률)에 따르면 스페인어로 더빙된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1월 10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 케

이블방송 '마가진(Magazine) TV'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된다.

한국 드라마가 아르헨티나의 주말 안방극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K-팝으로 인지도를 높인 한류가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은 문화원과 현지 한류 팬클럽 회원들의 끈기 있는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문화원은 2010년부터 해마다 '중남미 K-팝 경연대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현지 한류 팬클럽 회원들을 활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시크릿 가든' TV 방영 청원 운동을 벌였다. 청원 운동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마가진 TV는 중남미 각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오락,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같은 스페인어권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전 지역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1월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NAKS의 2015년 첫 사업으로 열린 이번 차세대 워크숍에는 미 전역의 14개 한국학교 지역 협의회에서 선발된 17명의 차세대 교사, NAKS의 장동구 이사장, 최미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세대 교사의 실태 파악,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차세대 교사 확충과 리더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 강사로는 수지 오 LA 3가 초등학교 교장, 차만재 프레즈노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NAKS 부회장인 이승민 새언약 한국학교 교장 등이 초빙돼 각각 '리더십과 변화 관리', '차세대 교사의 역사 인식', '소통과 공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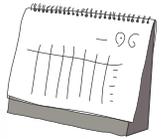
참가자들은 이틀간 집중 강연과 더불어 수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교사 간 교육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차세대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월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들이 교육 혁신에 참여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NAKS는 앞으로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워크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 재영 한글학교협의회, 런던서 교사 연수

재영한글학교협의회(회장 이정순)는 2월 20~21일 영국 런던의 홀리데이 인 런던 서튼 호텔에서 '2015 재영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80여 명의 교장과 교사가 참가하며 연수를 후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은 허옥희 안산시 별망초등학교 교사와 김정자 경인교육대 교수를 강사로 파견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집중 강의를 듣고 시범 수업 참관, 민요 배우기, 분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불가리아서 유럽 한인 학생들이 우리말 웅변 솜씨 겨룬다

유럽한인총연합회(유럽총연 · 회장 박종범)는 2월 7일부터 1박 2일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힐튼호텔에서 '제4회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 대회'를 개최한다. 박종범 회장은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차세대의 한민족 동질감을 고양하고 우리말 · 우리글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며 "유럽총연의 총회도 겸하고 있어 참가자, 학부모, 각국 한인회장이 함께하는 잔치 마당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미 MIT 한인 학생, 대규모 비즈니스 콘퍼런스 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2학년에 재학하는 백승민 씨는 3월 7일 MIT 미디어랩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날날이 파헤치다'라는 주제로 '2015 아시아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시아 비즈니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페이팔 미디어 네트워크 최고운영책임자 데이비드 장, SK텔레콤 벤처 파트너 데이비드 리, 케이큐브 벤처 대표 지미 림, 지티 타이어 회장 엔키 탄 등 아시아 지역 유망 회사의 대표들이 미국 청년들에게 실상과 경험 등을 들려준다.

## 독일 에센서 3·1절 기념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



재독한인총연합회(재독총연 · 회장 유제현)는 3월 7일 독일 에센의 재독한인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연다. 경연은 초등부(12세 이하), 중등부(13~15세), 고등부(16~18세), 외국인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외국인부의 경우 주제 제한 없이 한국어로 웅변 또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면 한글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2월 28일까지 재독총연 교육분과로 전화(+49-6173-9668919) 또는 이메일(yoo@onbiz.eu)로 신청하면 된다.

## 1월 임기 시작한 새 한인회장들 한목소리로 봉사 다짐

1만4천여 명의 재불 동포를 대표하는 이상무(47) 프랑스한인회장, 한인 인구 2만여 명을 대표하는 노종현(62) 싱가포르한인회장, 김용완(47) 재베이지한인회 회장, 정희천(53) 상하이한국인회장, 토머스 김(56) 샌프란시스코한인회장, 조성관(54) 카자흐스탄 한인회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을 위해 몸 바쳐 봉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끌어내겠다"면서 "한인 차세대 육성, 한인회관 건립, 소통화 화합 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1월 임기 시작한 새 한인회장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무, 노종현, 김용완, 조성관, 토머스 김, 정희천

## 유럽총연 정기총회

유럽한인총연합회(유럽총연 · 회장 박종범) 정기총회가 2월 6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 결산 보고와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유럽총연 산하 전 · 현직 한인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공로패 증정식'도 함께 거행된다.



# 강제 이주 역사 간직한 카자흐스탄 한인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민족 역량 키워

**재**러 한인들은 1864년 1월 조선에서 연해주로 한인 14가구가 이주했다는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1914년 '러시아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00년이 지난 2014년에도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러시아 한인 이주 150년의 역사는 통한의 역사이다.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은 그 아픈 역사의 주인공이다. 차별과 설움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벌이던 한인들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쓰고 허허벌판 중앙아시아로 내몰렸다.

1937년 8월 21일 구소련 정부는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로 의심된 다며 강제이주 명령을 내렸다. 군대를 동원해 9월 9일부터 11월까지 고려인 18만 명을 장장 5천~6천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내쫓은 것이다. 불과 1주일, 또는 2~3일 전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강제이주에 앞서 스탈린 비밀경찰은 고려인 지도자 2천500명을 체포·처형해 고려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내디딘 고려인들은 현지인 집의 창고나 축사 등을 얻어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판에 토굴을 파고 살았다. 누구의 도움 한번 받지 않고 황무지를 일구느라 많은 고려인이 쓰러져갔다. 당시의 숙청, 기근, 질병 등으로 최대 2만5천 명이 사망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경 지역 이주 금지를 비롯해 입대 거부 등 차별 대우에도 시달렸다. 또 국가기관 취업 및 취학이 제한됐고, 정계 진출이 봉

쇄된 것은 물론 민족학교도 폐쇄됐다. 고유 언어는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고려인은 좌절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거듭했다. 중앙아시아에 농사를 전파한 고려인은 농사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 학자·교사·의사·건축가·엔지니어·법률가·공무원 등 각종 전문 직종에 진출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는 고려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소련 시절 공용어인 러시아어만을 구사하던 고려인들은 신생 독립국들이 토착 민족어를 국가 공용어로 선포하면서 전문직과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당시 고려인들은 신분 추락을 감수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다시 이주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고,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다행히도 1993년 러시아연방 최고 회의는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제이주의 탄압이 불법적이고 범죄였음을 인정했다.

신원이 회복된 고려인들은 독립국가연합지역(CIS)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카스피 그룹을 이끌고 있는 고려인 최유리 회장은 가난한 고려인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의 복싱 스타로 성공한 뒤, 사업을 일으켜 대기업 총수가 됐다. 그는 카자흐스탄 신수도 아스타나 건설의 주역이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의 사주로 23억 달러의 재산가인 김 블라디미르, 최대 건설사인 '쿠아트'의 남 올렉 사장 등이 있다.

정계 진출도 활발하다. 2007년 최유리 상원의원과 빅토르 최 하



피겨 스타 데니스 텐



2013년 8월에 열린 제1회 카자흐·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알마티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다양한 K-팝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13년 2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카자흐스탄 한인회가 주최한 잔치에서 참석자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강제 이주 고려인이 첫발을 디딘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토굴촌에 고려인협회가 세운 정착 기념비. 주변은 공동묘지로 변했다.

원의원을 배출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김로만 회장이 소수 민족 대표로 하원에서 활약 중이다.

스포츠에선 피겨 스타 데니스 텐(21)이 독보적이다. 데니스 텐은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해 카자흐스탄 피겨의 영웅으로 떠오른 선수다. 특히 그는 구한말 의병장인 민공호 선생의 고손자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려인들은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지만, 20여 명의 정치인과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를 40명 넘게 배출하며 카자흐의 사회지도층으로서 자리매김했다.

2013년 외교부 집계 따르면 현재 고려인은 러시아에 17만6천여 명, 우즈베키스탄에 17만3천여 명, 카자흐스탄에 10만5천여 명, 키르기스에 1만8천여 명, 우크라이나에 1만3천여 명, 투르크메니스탄에 1천여 명, 벨라루스에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도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카스피그룹의 총수 최유리 회장



2012년 1월 알마티에서 고려문화인협회의회가 발간한 문예지 '고려문화' 3호 발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2007년 3월 1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 민족화합관에서 열린 '고려인 문화의 날' 선포식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 준비 콘퍼런스 한인 정치력 확대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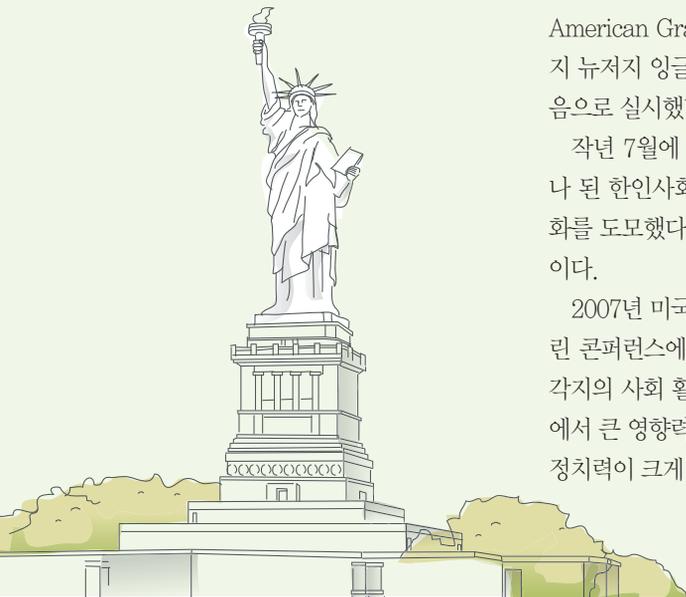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의 한인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욕·뉴저지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센터’는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 (2015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를 위한 준비 콘퍼런스를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뉴저지 잉글우드 크라운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를 올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열렸다.

작년 7월에 개최한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에는 250여 명의 한인 활동가가 참석해 하나 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미국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한인 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이 통과된 지 7년이 된 것을 기념해 열린 콘퍼런스에는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미국 각지의 사회 활동가와 한인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 의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한파 연방 상·하원 의원 11명도 모습을 드러내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1.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전 하원의원이 2014년 11월 19일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와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2.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를 위한 준비 콘퍼런스가 뉴저지 잉글우드의 크라운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3. 2014년 7월에 열린 제1회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에서 찰스 랭클(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2



3

당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만찬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옥선·강일출 할머니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며 먼 길을 와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혼다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불린다. 혼다 의원은 지난해 초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위안부 법안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방 정부 지출안에 위안부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 부속문서를 포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 여름까지 5~6회 준비 모임 예정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여름에 여는 2회 대회는 작년보다 훨씬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인 활동가들의 참가 인원을 늘리는 한편,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도 더 많이 함께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2회 대회를 더 조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13개 주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풀뿌리 시민 참여 활동, 유권자 운동 방법,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공유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한인사회가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캠페인의 주제로 ▲포괄적 이민개혁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한·미 동맹 강화 ▲미국 시민권자 이산가족 상봉 ▲한·미·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우익 전쟁범죄 부정 저지 등을 소개했고, 참가자들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시민참여센터는 2월에 시카고에서 두 번째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여름까지 5~6회 준비 모임을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사회의 이슈는 외교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다가가야 한다”면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창**

# GLOBAL KOREAN

## 미 최대 환경단체 신임 회장 된 한인 2세 리아 서 “한국계, 정치 영역서 목소리 높여야”



한인 2세 리아 서 씨가 미 환경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미국 연방 내무부에서 차관보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 리아 서(42) 씨가 2015년 1월 1일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천연자원보호협회(NDRC)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NDRC는 지난 9월 서 씨가 2014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프랜시스 베이네크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서 회장은 1960년 초반 미국에 이민 온 서정하 전 콜로라

도대 교수의 딸로, 1972년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태어났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1기에 발탁된 그는 내무부 정책·관리·예산 담당 차관보로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졌다.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과 7만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고위 정무직으로 지난 2009년 3월 의회 인준을 통과했던 그는 2013년 11월에는 미국의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정책 등을 총괄하는 어류·야생생물·공원 담당 차관보를 맡았다.

서 회장은 컬럼비아대에서 환경 과학 및 교육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에 오르기 전 플로라 휴렛재단에서 프로그램 국장으로 활동하며 서북미 지역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뉴욕 시에서 고교 과학 교사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벤 캠벨 연방 상원의원(공화)의 입법 담당 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다.

서 회장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자라면서 스스로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살았다”고 ‘정서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며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주 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 추진하는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장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

호주 동포사회가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로 무기한 보류됐던 호주 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재추진한다. 호주 내 한국과 중국 동포사회는 지난해 4월 스트라스필드 시 의회의 표결 보류 결정 이후 사실상 공전(空轉)하던 소녀상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장은 최근 줄리안 바카리 스트라스필드 시장 앞으로 위안부 소녀상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서

한을 보냈다. 송 회장은 서한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놓고 스트라스필드 시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서 6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태”라며 “호주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다면 후대에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으며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바카리 시장에게 신속한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서한 보



내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고,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제상사 수출부에 근무하다가 시드니에 이민, 1986년 퀸즐랜드대 경영대학원 2년 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스시 전문점 ‘스시월드’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시드니 시티 한인상우회장,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무역 분과 위원장, 스트라스필드 코리아나가든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중 동포사회는 호주인 중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한국과 중국, 호주인 위안부를 상징하는 3명의 소녀가 나란히 손을 잡는 형태의 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장.

## 한류 쇼핑몰 운영하는 이순배 거산재팬 대표

# 연매출 1천만 달러 기록

음반, 김치, 김, 화장품, 생활용품 등 한국 상품만을 고집하며 18년째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상이 있다. 주인공은 취급하는 가짓수만도 7천 중에 이르며 연매출 1천만 달러를 올리는 거산재팬의 이순배(57) 대표.

1991년 고려합섬 일본 도쿄 사무소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에 발을 디딘 그는 6년 뒤 본사 복귀를 앞두고 잔류를 결심해 창업했다. 당시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 회사 제품을 팔기 위해 부지런히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노력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본 일본 기업인이 자금을 빌려주며 창업을 권유한 덕분이다.

창업 초기 한국에서 자동차 용품·산업 자재·경공업 제품 등을 수입, 일본에 판매해 재미를 봤지만 단가 상승과 저가 중국산의 공세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돌파구를 찾기에 고심하던 이 대표가 눈여겨본 것이 때마침 조금씩 불기 시작한 ‘한류(韓流)’ 열풍.

일본 사회도 장기 불황의 여파로 소비가 고가의 자국 제품 중심에서 저가의 수입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쇼핑도 백화점에서 대형 양판점과 인터넷으로 변하는 것을 감지한 그는 유통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



한국 상품만을 고집하며 18년째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순배 거산재팬 대표

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공급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

거산재팬은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 입점을 시작으로 쿠팡, 야후 쇼핑,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포털 쇼핑몰과 자체 사이트 등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했다. **창**

# 미주 한인의 날 맞아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 선정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성공 신화

김세진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토비 도슨(왼쪽부터), 이준구, 짐 백 등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에 선정된 이들이 도널드 만줄로(맨 오른쪽) KEI 소장과 함께 기념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주 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을 기념해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에 미국 태권도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술인 이준구(85) 씨 등 4명이 지명됐다. 동양인 최초의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우승자 짐 백(48), 미국 프로 풋볼(NFL)에서 2번 우승 경험을 한 하인스 워드(39), 동계올림픽 동메달 수상자 토비 도슨(37)도 공동으로 지명됐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DI)는 1월 13일 워싱턴DC의 언론박물관 ‘뉴지엄’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명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미국에서 ‘그랜드 마스터’로 불리는 이준구 씨는 1962년 워싱턴DC에 태권도 도장을 개설한 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뿐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바른 마음을 갖는 법을 가르쳤다.

서울 태생인 짐 백 씨는 미국의 유명 아이스하키 팀인 피츠버그 팅크스에서 활약하며 1990~1991시즌과 1991~1992시즌에 우승컵인 ‘스탠리컵’을 들어 올렸고, 지난해에는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하인스 워드는 1998년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지명을 받아 NFL에 입문, 14년간 활약하다가 2012년 3월 은퇴 후 NBC방송에서 풋볼 경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첫 우승 때는 4쿼터에서 극적인 터치다운으로 결승점을 올려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김영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한 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에서 자랐다.

부산에서 태어난 뒤 미국 가정에 입양된 토비 도슨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모굴스키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한국 프리스타일 국가대표팀 코치로 일했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탰다.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은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다”고 치하했다.

축사에 나선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 가운데 하나는 힘든 일에 기꺼이 나서서 미국의 일부가 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랭글 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지한파’ 인물들과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미국 프로 풋볼(NFL)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였던 하인스 워드가 자신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모국 활동 편의성 높이려 도입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1월 22일 시행됐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결실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은 "국내거소 신고를 해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주민 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상업정보고 학생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1월 22일부터 함께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재외국민이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여 명.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분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Q.**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A.**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인화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친계혈족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신분증 역할을 하던 국내거소 신고증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주민등록 신청과 증 발급은 무료다. 분실 등에 따른 증 재발급 때는 내국인과 똑같이 5천 원을 내야 한다.



## 아시안컵 축구 동포 응원 열기 선수들 복돋워 준 뜨거운 동포애

1월 31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한국과 호주의 2015 아시안컵 결승전에 호주 동포 1만여 명이 응원을 나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응원단 '붉은악마'도 힘을 보탰다. 붉은악마 응원단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응원전을 펼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결승전에서는 평소대로 ' 짹짹! 짹짹! 대~한민국! 구호, '오~ 필승 코리아!'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한국은 전반에 골을 허용한 뒤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해 패색이 짙어졌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끊어지지 않았고 기적 같은 동점골이 터졌다.

한국은 연장전 전반에 다시 골을 내줘 1-2로 끌려갔으나 한국 응원단은 충격을 딛고 차분하게 다시 응원전을 재개했다. 끝까지 재동점골을 터지지 않았다. 관중들은 패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눈물을 쏟는 태극전사들을 위로하고 다음 기회에 선전하기를 기원했다. 끝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에 태극전사들은 일렬로 응원석 앞으로 나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포들의 응원 열기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 내내 조금도 식지 않



1월 10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A조 1차전 한국 대 오만 경기를 앞두고 응원 나온 동포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았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월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최국 호주와의 A조 3차전 경기에서 호주 관중의 함성, 야유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그 길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쾌승을 거뒀고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1월 26일 열린 한국과 이라크 축구 대표팀의 준결승전은 선수들의 투지만큼이나 응원

전으로도 후끈 달아올랐다. 축구 팬들은 비 때문에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키포 몇 시간 전부터 매표소 앞에 장사진을 쳤다. 한국과 이라크 팬들은 경기장을 반쪽씩 나눠 점거했다. 주된 응원은 전통악기를 박자에 맞춰 연주하며 함성을 곁들이는 것이었다. 이라크는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국기를 흔들었다. 이에 동포, 유학생, 여행객들은 팽과리와 막대풍선을 때리며 함성과 박수로 맞섰다.

동포들의 응원 열기에 고무된 한국 축구 대표팀은 1988년 대회 준우승 이후 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다. '개최국' 호주와의 결승전 경기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피를 말리는 연장전까지 치러야 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다. **창**



다양한 문화 활동 펼치는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

# “한인 여성들이여! 네 꿈을 펼쳐라!”

채혜미 싱가포르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여성가요제'에는 많은 한인 여성이 출전해 끼와 열정을 뽐냈다.

**2만** 여 명의 한인이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그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한류의 인기를 실감하듯 한국 브랜드의 커피숍, 베이커리, 화장품, 식당 등 친숙한 한국 간판을 시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에 살면서 때때로 채워지지 않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글로벌 시대를 잘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한인 여성들에게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

위정림 한인여성회 회장은 “여성에게 풍요한 삶의 장을 제공하고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발족된 한인여성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해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며 “올해는 더욱 여성의 참여가 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회 관계자는 행사를 치를 때마다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격려와 감상을 전하는 이가 많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재미한인여성회'를 모태로 새로 발족한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는 상호 친목과 자기계발, 문화예술 및 봉사 활동으로 한인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은 물론 양국 간의 민간 친선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제3회 한국 자선 바자회'에서는 한국 상차림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가치를 현지 사회에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 차세대를 위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염원 띠 만들어 달기 행사도 추진했다.

이번 바자회는 음식과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며 한국을 알렸고 수익금을 암팡 지역의 경찰 순직자 가정과 난민학교에 기부해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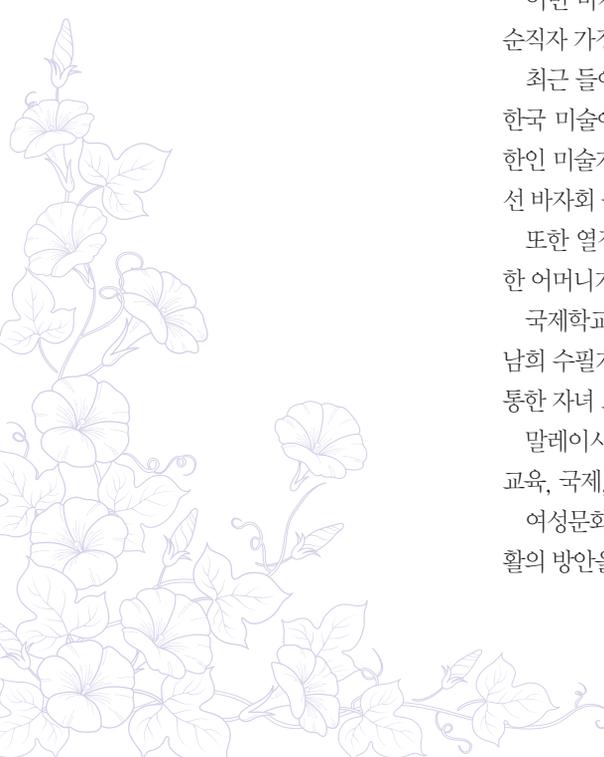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의 한류는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 미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미술가들은 채색화, 수채화, 아크릴리화, 콜라주 등의 다양한 미디어 작품 전시회를 한국 자선 바자회 공간에 함께 마련해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또한 열정과 끼를 마음껏 뽐냈던 여성가요제에서는 피아노를 갖고 싶어하는 자녀를 위해 출전한 어머니가 대상인 디지털 피아노를 차지하는 훈훈한 사연을 남겼다.

국제학교에서는 '나는 작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문학과 자녀교육' 강연회가 열렸다. 권남희 수필가와 김용만 소설가의 강연을 들은 청중들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새삼 느끼며 글쓰기를 통한 자녀 교육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한인여성회는 예술, 자기계발, 건강 지원, 복지 및 봉사, 대외 행사, 커뮤니케이션, 교육, 국제, 행정 지원 분과 등 9개 분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성문화원 건립을 목표로 여성회는 단결, 화합, 국위 선양을 내걸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해외 생활의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한인 여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창**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재외동포재단 방문



1월 14일 재외동포재단을 찾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년 재단 주요 사업 계획을 듣고 직원을 격려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월 14일 수요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 위치한 재외동포재단을 찾아 2015년 재단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현안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외교부 장관이 산하기관을 방문해 직접 현안을 챙기는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윤 장관과 조규형 재단 이사장의 환담, 재단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 재단 순시를 통한 임·직원 격려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조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윤 장관에게 “재단의 2015년 예산은 5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5.3%)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권익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조선족 동포 정체성 함양 사업과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재단의 각종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동포재단 창립 이래 최초로 예산 500억 원을 넘음으로써 700만 동포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한층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올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재외동포들이 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재외동포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라는 인식이 국민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단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모바일로 한글 공부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



전자도서관 서비스 홈페이지

재외동포가 앞으로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전자책을 보며 한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기존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PC로만 전자책을 내려 받도록 해 운영체제(OS)가 다르거나 정보기술(IT)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로도 전자책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초·중등 교과과정에 맞춰 한글·역사·문화·과학 관련 도서 7천60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용 '어린이 전자도서관' (ebook.korean.net)에서는 동화·자연관찰·과학기술 등을, 중등용 '중학교 전자도서관' (mbook.korean.net)에서는 고전·경제·철학·문학 등의 도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우선 45개국 228개 한글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받아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한글학교에서는 PC 접속이 어려워 오히려 모바일 기기를 선호한다"면서 "새 전자도서관을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와 청소년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로는 안드로이드 계열은 지난달 말부터, IOS 계열은 오는 3월부터 서비스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 교육 웹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 (study.korean.net)을 참조하면 된다.

## 재외동포 태극기 사진 공모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제1회 태극기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해외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세계 속의 태극기'를 주제로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면서 태극기를 접한 순간의 느낌과 소회를 사진에 담아내면 된다.

출품작은 3장 이내이며 아동·청소년·대학생 이상 성인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심



'2013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김지민(미국)의 '광복절 행사'

사한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오는 10월 세계한인주간에 전시회도 추진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이메일(taegukgi0306@naver.com 또는 taegukgi0306@gmail.com)로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본부' 서울사무국(☎02-2109-8600)으로 할 수 있다.

## 해외 한글학교 교사 대상 사이버 연수 실시

재외동포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를 실시한다고 1월 7일 밝혔다.

중국, 인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의 한글학교 교사 60여 명을 선발해 온라인으로 한국어 문법, 한국의 전통·문화·역사 등을 강의하고 교육 실습도 진행한다.

1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시행한다.

교육비는 1인당 80만 원가량으로 교사 개인이 5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이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미국 동포사회 목소리 청취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월 15일부터 7일간 미국 동포사회 현황 파악을 위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LA를 방문하고 '미주한인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 지역 활동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KAGC는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해 재미동포 풀뿌리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례 콘퍼런스다.

조 이사장은 1월 15일 주뉴욕총영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차세대 정치인을 비롯한 뉴욕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16일에는 뉴욕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한인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뉴욕 한글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KAGC 지역활동가 세미나' 참가자와의 만찬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7일에는 '2015 KAGC 지역활동가 세미나'에 참가했고, 1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9일에는 LA한인회와 동포 밀집 지역을 방문해 한상 리딩CEO 및 한인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월 19일 LA한인회를 방문해 제임스 안 한인회장 등과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세월

김소연 프랑스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추위와 거짓말들에 질려 잠이 깨다.  
 집이 없어지면  
 양말과 속옷이 없어진다.  
 휘 히볼리 Rue Rivoli  
 등의 깜빡거림에 불안하다.  
 무수한 시간이 내게 왔다가  
 흘러갔다.  
 티브이 TV 속 파란 종로 하늘  
 울음이 많아졌다.

정직할 것  
 얼굴들  
 놀란 긴장한  
 까칠하고 피곤하고  
 지저분하고 영클어진  
 아픈 얼굴들.  
 나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  
 그 걱정이 거리를  
 무섭게 변하게 했다.

직선  
 미루어진 일들과  
 자꾸 늦어지는 아침  
 1킬로 밀가루와 1리터 기름을 샀다.  
 불쑥 띤 흰 머리 같은 각성  
 이걸 아주 위험하다.

내내, 기를 쓰고 변명하다가  
 나는 부끄러워졌다.  
 더 이상 믿지 않는 드라마의 행복한 결말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생각 중  
 도망치는 중.

나와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  
 외계인의  
 시선

그녀들의 멍한 눈  
 그들의 뿌연 막이 쳐진 눈에  
 끔찍한 절망으로 마음이 얼어붙는다.  
 시선 둘 곳이 없는 거리  
 여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문도 창도 공기구멍도 없이 완전히 막힌  
 밀봉된 물렁한 덩어리  
 아래로 내리깐 눈이 가끔 밖을 힐끗거리는  
 흰 덩어리 같았다.  
 그녀들은  
 멈춘 순간  
 순간 이동  
 평생 찾을 수 없는  
 죽어버린 아이를  
 찾을 엄마  
 울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여자아이  
 새벽이 목까지 차오른다.

할머니  
 흔들거리는  
 12년  
 시간  
 시간을 앞서 잡는다.  
 하루 끝에 몰려  
 그녀는  
 계단 위로 올라가  
 짹짹 소리를 질러댔다.  
 그건 울음 섞인 외침이었고 더 이상  
 어떤 언어도 아니었다.

유 에프오 UFO  
 정체 드러내기  
 투명한  
 하늘색 눈  
 벌레  
 공포에 가까운  
 절망과 희망  
 세월  
 덕분에 매번 나는 또 시린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 바른 말 고운 말

**혼동 / 혼돈 / 혼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해서 잘못 쓰기 쉬운 단어들로 '혼동, 혼돈, 혼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동이라는 말은 뒤섞어 보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라든가 '차유와 방종을 혼동하지 말아라'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사물의 구별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데, '혼돈 상태' 라든가 '혼돈세계' 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은 뒤죽박죽이 돼서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질서가 무란한 시기를 '혼란기' 라고 하고 '정치적 혼란기' 또는 '문화적 혼란기' 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상태가 어지럽고 뒤죽박죽된 시기를 표현할 때는 '경제적인 혼란기'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백서 / 청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의 실정을 알리는 보고서나 '환경 운동 백서'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원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식 보고서를 뜻하던 이 말은 오늘날 일반적인 실정 보고서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백서라는 말은 그 일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 글이라는 뜻으로 '흰 백(白) 자를 씁니다. 이 말의 기원은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비롯됩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정부의 보고서 표지에는 흰 표지를 붙였고, 의회의 보고서에는 푸른 표지를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시정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를 영어로 'White Book', 즉 우리말로 백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청서라는 의미의 'Blue Book' 은 영국에서 의회나 정부 발행의 보고서를 말하고, 미국에서는 푸른 표지의 정부 간행물을 의미합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    |    |    |    |    |    |    |   |
|----|----|----|----|----|----|----|----|----|---|
| 1  |    |    | 2  |    | 3  |    |    |    |   |
|    |    |    |    |    |    |    |    |    | 4 |
| 5  | 6  |    | 7  | 8  |    |    |    | 9  |   |
|    | 10 | 11 |    |    |    | 12 |    |    |   |
|    |    | 13 |    |    | 14 |    |    |    |   |
|    | 15 |    |    | 16 |    | 17 | 18 |    |   |
| 19 |    |    | 20 |    | 21 |    | 22 | 23 |   |
|    |    |    |    |    |    |    |    |    |   |
|    |    | 24 |    |    | 25 |    |    |    |   |

### ▶ 오른쪽 방향 열쇠

-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시력
- 인삼을 넣어 담근 술
-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돼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 사람이 앉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는 탈 것. 인장에 올라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교대로 밟아 체인으로 바퀴를 돌리게 돼 있다.
- 옛날 물건. 헐거나 낡은 물건
- 땅을 밟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

### 르는 말

-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띤 물체. 천연적으로는 자철석이 있고, 강철을 인공적으로 자기화해 만들기도 한다.
-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유럽 서부 대서양 가운데 있는 입천 군주국.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및 부근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수도는 런던이다.
- 출판이나 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
-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이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 지속한 감기. 유행성 감기
- 사람이 걸터앉는 데 쓰는 기구. 보통 뒤에 등받이가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우리나라의 현행 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 ▶ 아래쪽 방향 열쇠

-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부대
- 실제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
-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 주로 사람을 태운다.
-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든다.
-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주로 구전되며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한다.
-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
-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
-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에 드는 비용
-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해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
-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한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 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
- 독일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연방 공화국. 1990년에 동독과 통합해 독일 연방 공화국을 이루었다.
- 잠이 들게 하는 약
-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열차나 지하철, 선박, 항공기 따위의 기관을 다루거나 조종하는 사람
- 지휘하고 단속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 ▶ 1월호 정답

|   |   |   |   |   |   |
|---|---|---|---|---|---|
| 소 | 금 | 투 | 방 | 앗 | 간 |
| 나 |   | 구 | 사 | 일 | 생 |
| 기 |   |   | 군 | 소 | 독 |
|   | 장 | 임 | 자 | 총 |   |
|   | 가 | 야 | 금 | 장 | 기 |
|   |   | 구 | 칼 | 날 | 염 |
| 임 | 무 | 미 | 국 | 동 | 동 |
| 신 | 일 | 각 | 수 | 지 | 동 |
| 부 | 상 | 병 |   |   | 한 |

포항 영일만에서 구룡포까지

# 만과 꽃이 서로 부둥켜안는 땅



1

바다가 육지로 깊숙이 들어온 만(灣)과 물이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곳(串)이 사이좋게 잇대어 있다. 경북 포항을 상징하는 영일만과 호랑이의 꼬리라는 호미곶이다. 이곳은 동해에서는 드물게 해안선이 복잡한 편이다. 포항의 바닷가에서는 다채로운 경치와 싱싱한 해산물이 시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조선시대 풍수학자인 남사고는 한반도를 연해주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백두산은 코, 호미곶은 꼬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호미곶은 본래 말갈기 같다고 해서 '장기곶'으로 불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호미곶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인다. 행정구역도 2010년 대보면에서 호미곶면으로 변경됐다.

평범한 해변인 호미곶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 탄생시킨 명소다. 지난 1999년에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상상력이 동원된 또 다른 명물이 등장했다. 화합과 조화를 표현한 '상생의 손'이다. 바다에는 높이 8m의 오른손, 해맞이 광장에는 3m의 왼손이 설치됐다. 두 손은 모양이 조금 다른데, 바닷



가에 있는 오른손은 호미곶 일출을 나타내는 심벌이 됐다.

호미곶에는 수평선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짧은 탐방로가 마련돼 있다. 바다 위에 놓인 길에는 대형 문어 동상과 해가 쬐는 방향을 가리키는 소년의 동상이 있다. 탐방로의 끝에 서면 강한 바람이 불지만, 상쾌하고 시원스러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지난날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소망을 기원하기 적당한 장소다.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어도 길손이 많이 들르는 이유다.

## 어항 구룡포와 별미 과메기

호미곶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면 큰 어항(漁港)인 구룡포가 나온다. 구룡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어촌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항구가 건설되면서 동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했다.

겨울에는 포항의 별미인 대게와 과메기를 파는 상점과 노점으로 인해 활기가 넘친다. 산지인 만큼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특히 포항 죽도시장은 쇼핑과 식도락을 즐기려는 사람으로 언제나



3



4



2



5



6

1. 죽도시장에는 200여 개 횃집이 몰려 있어 다양한 회를 즐길 수 있다.
2. 청어를 말려 과메기를 만들고 있다.
3. 포항시에 겨울 철새 기러기 떼가 날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다.
4.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매년 열리는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대회'.
5. 포항 호미곶 연안에 설치된 '상생의 손'.
6.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주 지역이던 구룡포에는 일본식 가옥이 일부 남아 있다.

뽀뽀다.

과메기를 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제17회 과메기 축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틀간 구룡포 과메기 문화 거리에서 펼쳐졌다. 과메기는 본래 청어를 바닷바람에 말려 먹는 것이었지만 청어 생산량이 줄어들어 1960년대부터는 청어 대신 꽂치를 말려먹기 시작했다. 2010년대 들어 점차 과메기가 대중화하자 요즘은 청어 과메기도 선을 보이고 있다. 청어 과메기는 꽂치 과메기에 비해 비릿한 내음이 덜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장**

### ▶ 포항 시티 투어



포항시에서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하게 시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정기투어는 포항 운하를 출발해 죽도시장, 포스코 공장, 호미곶, 구룡포를 돌아오는 코스와 덕동문화마을, 경상북도수목원, 영일대를 돌아오는 코스 등이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중일투어와 반일 및 야간투어가 있다.(문의 054-278-8500)

### ▶ 싱싱한 회타운



남녘 땅 제일 동쪽으로 돌출한 포항에는 싱싱한 수산물에 맛볼 수 있는 회타운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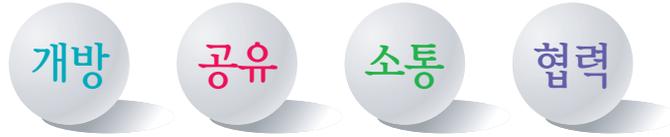
**죽도시장** : 200여 개 횃집이 몰려 있어 포항물회와 구룡포 과메기 등 다양한 회를 즐길 수 있다.

**영일대 해수욕장** : 백사장 2km를 끼고 50여 개 횃집과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해 있다. 물회, 모듬회가 특징.

이밖에도 포항시 시내의 두호동과 환어동에 회타운이 몰려 있다.

Tip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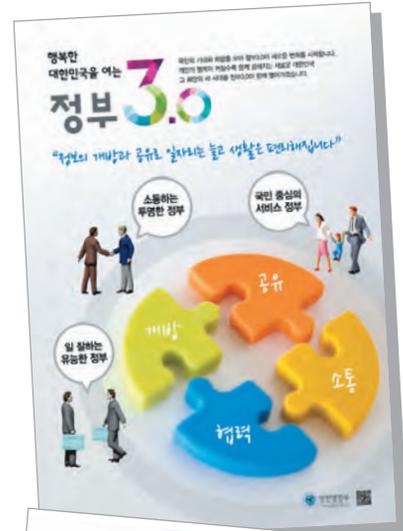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 [wakaru@yna.co.kr](mailto:wakaru@yna.co.kr)  
[shaorong@okf.or.kr](mailto: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행정자치부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700만 재외동포,  
세계속의 한국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